

삼성, AI 냉각시장 공략... 인도 생산확대·광주 신공장 추진

푸네 신규라인 연 6500대 양산
광주서 중앙공조·정밀냉각 제작
레노스 합작 통해 북미 유통망 확보
플렉트 인수 시너지로 경쟁력 강화
DX부문 차세대 성장축 HVAC 육성

삼성전자가 인도에 공조 생산라인을 준공하고 국내에서도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냉각 장비 수요가 커지자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을 앞세워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플렉트그룹 냉난방 공조(HVAC)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과 임성택 공조사업팀장 부사장, 데이비드 도니 플렉트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6개월 만에 양산 체제

새 생산라인은 1만3826㎡ 규모로 이 가운데 1만2000㎡ 이상이 생산 공간이다. 올해 초 설비 구축에 들어가 6개월 만에 양산 체제를 갖췄으며 완전 가동 시 연간 65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12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플렉트그룹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데브라지 싱 플렉트그룹 아시아 영업총괄,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부사장), 데이비드 도니 플렉트그룹 CEO, 임성택 삼성전자 DA사업부 HVAC사업팀장(부사장). /삼성전자

플렉트그룹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공기 조화기(AHU)와 컴퓨터룸 공기 처리 장치(CRAH) 등 데이터센터 냉각장비를 만든다. 냉각액을 순환시켜 서버를 직접 식히는 액체냉각 설비인 냉각수 분배장치(CDU)도 생산 품목에 포함됐다.

푸네는 인도 데이터센터와 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이다. Mumbai항구와 가까워 공급망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입지 선정에 고려됐다. 새 생산

라인은 기존 노이다 공장과 함께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급을 맡는다.

◆ 광주 신공장 추진

국내에서는 광주 HVAC 신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삼성전자 그린시티 3캠퍼스 유휴 부지에 별도 공장동을 세우는 방식으로 투자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건축허가를 마치고 다음 달 착공식을 여는 방안을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 공장에서는 국내 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중앙공조와 정밀냉각 장비를 주로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유럽 등 해외 공장에서 들어오던 물량 일부를 국내 생산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에 이어 북미에서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미국 레노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며 유통망을 확보했다. 지분은 삼성전자 50.1%, 레노스 49.9%다. 현지 생산시설 신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부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 AI 공조 62조 시장 노린다

삼성전자가 공조 사업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시장 성장세가 있다. AI-데이터센터 공조 시장은 2030년까지 6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니 CEO도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와 AI-사물인터넷(IoT) 도입 확대를 성장 요인으로 꼽으며 히트펌프와 액체냉각 수요를 중심으로 2035년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렉트그룹 지분 전량을 15억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절차를 마쳤다. 2016년 하만 이후 9년 만의 조 단위 인수였다. 1909년 설립된 플렉트그룹은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에서만 60년 넘는 경험을 쌓았고 전 세계 14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제네시스, GV80 차세대 하이브리드 첫 적용

2.5 터보·듀얼모터 결합 352마력 구현
기존 모델 대비 출력 16%·토크 26% ↑
복합연비 25% 개선 전기차 감성 강화

제네시스가 전기차 주행감성과 고성능을 앞세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GV80 하이브리드에 처음 적용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13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2.5가솔린 터보 엔진과 시동·발전용 모터(P1), 구동·회생제동용 모터(P2)를 결합한 병렬형 구조가 적용됐다. 합산 최고출력은 352마력, 합산 최대 토크는 54.0kg·m에 달한다. 기존 GV80 2.5터보 대비 출력은 약 16%, 토크는 26% 높였다. 연구소 자체 시험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1초 만에 도달했다.



제네시스 GV80 하이브리드.

효율 개선도 눈에 띈다. GV80 19인치 2WD 5인승 기준 자체 측정 복합연비는 기존 2.5터보보다 25% 이상 향상됐다. 다만 정부 인증 연비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로 수냉식 배터리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배터리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냉식 대비 높은 방전 출력을 확보하고, 모터 활용 영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정속성과 선형적인 가속감을 강화했다.

특히 출발 직후 약 시속 30km까지 EV 모드 활용을 늘려 냉간 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진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다. 도심 정체나 잦은 신호 구간에서도 전기 모터 주행을 적극 활용한다.

가속 성능 역시 강화했다. EV 주행 중 급가속 요구가 들어오면 변속과 엔진 클러치 접합을 동시에 제어해 즉각적인 동력 응답을 구현한다. 시속 100km 주행 중 재가속 성능은 기존 2.5터보보다 약 18% 빠르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후진에는 P2 모터를 역방향으로 구동하는 방식을 적용해 변속기 R단 관련 부품을 줄였다. 이에 따라 중량과 마찰을 낮추면서 전달 효율과 출발 가속 성능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ysw@

정기선 “최대 실적에 안주 말라”

HD현대, AI·신사업 미래전략 점검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에도 계열사 경영진에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을 주문했다. 주력 사업의 실적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HD현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정 회장과 조영철·조석·이상균 부회장, 조선·해양·에너지·건설기계 등 11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룹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장단은 계열사별 상반기 실적과 신사업,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I) 등 주요 현안과 사업별 실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도 살폈다.

특히 AI 기술의 계열사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정 회장은 최근 실적 호조에도 장기적인 관점의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HD현대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4094억원, 영업이익 4조12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2%, 262.2%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분기 기준 최대다.

정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도 우리 그룹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CJ대한통운, 택배 점유율 45% 돌파

상반기 물량 9억2100만개 13.2% 증가

CJ대한통운이 국내 택배시장에서 올 상반기 45%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더욱 굳히고 있다.

증권가에선 ‘배일요네’를 중심으로 한 ‘주 7일 배송’ 등 서비스 차별화가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물량 추가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까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물류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CJ대한통운의 택배시장 점유율을 전년 동기보다 2.3포인트 늘어난 45.2%로 추산했다.

NH투자증권은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45.5%,

45.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량은 9억2100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는 등 업계를 웃도는 물량 성장세가 점유율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 정연승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을 제외한 국내 택배업체들은 물량 성장의 한계와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반면 CJ대한통운은 서비스 격차를 기반으로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단기적인 가격 경쟁에 따른 수익성 부담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CJ대한통운 중심의 국내 택배시장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LS증권도 배송 서비스 차별화가 고객선점 효과를 내면서 물동량과 시장점유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1조 LP성장펀드 출범해 벤처투자 활성화

중기부·한국벤처투자 민간 출자 유도
우선손실충당·풋옵션 혜택 강화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 ‘LP성장펀드’가 본격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LP성장펀드 출범식’을 진행했다.

LP성장펀드는 다양한 출자기관이 벤처투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구조로 설계된 투자 플랫폼이다. 연기금, 금융권,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정부가 자펀드 또는 모펀드 방식

의 투트랙 출자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해 다양한 민간 출자기관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LP성장펀드 출범에 따라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신규 출자자 유입과 연기금 출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출자를 결정한 1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LP성장펀드를 계기로 최초로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나선다. 5개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방안정화기금, 한국수출입은행, KMI한국화학연구소, 극동물류그룹이다. /김승호 기자 bada@

HMM, 2분기 영업이익 52%↑ 불확실성 속 수익성 개선

HMM이 글로벌 해운 시장 불확실성 확산 속에도 2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 10.2%를 기록하며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HMM은 2분기 매출액 3조4020억원, 영업이익 3541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52% 급증한 수치다. 상반기 전체 매출은 6조1207억 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6232억원으로 전년 동기(8471억원) 대비 일시적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이후 중동 전쟁에 따른 매출 손실과 연료비 등 원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양성운 기자 ysw@